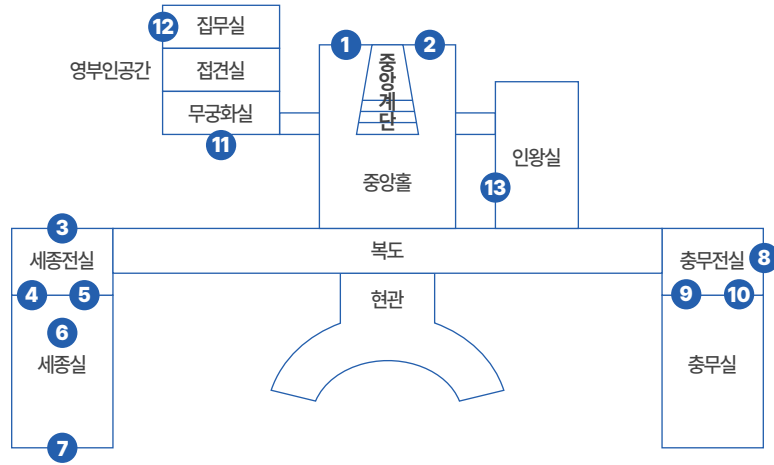


1F



1 이영찬, <풍악>, 1973, 종이에 수묵담채, 162.8×132.4cm

2 하태진, <산수>, 1983, 종이에 수묵담채, 164.4×160.9cm

3 역대 대통령 존영 초상화 12점

4,5 성낙윤, <흥배-문, 무>, 1991, 비단에 자수, 134.4×106.2cm x(2)

6 송규태, <일월도>, 1991, 종이에 채색, 368×465cm

7 백금남, <훈민정음>, 1991, 종이에 실크스크린, 368×465cm

8 이수덕, <아래일일신시대한국>, 1986, 종이에 먹, 194.4×56.7cm x(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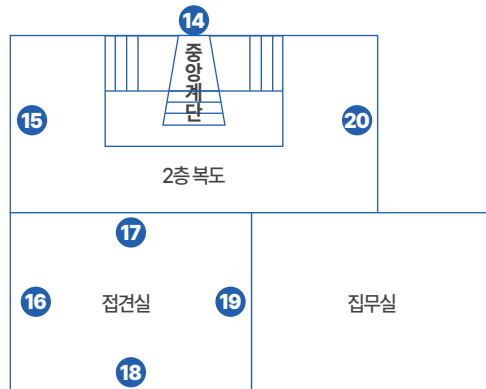
9,10 김희진, <청홍류소한쌍>, 1991, 명주실, 220×110cm x(2)

11 역대 영부인 존영 사진 11점

12 손수택, <7월 계림>, 1973, 캔버스에 유채, 130.2×161cm

13 전혁림, <통영항(한려수도)>, 2006, 캔버스에 유채, 602.6×255.6cm

2F



14 김식, <금수강산도>, 1991, 종이에 채색, 533×1146cm

15 이기우, <공심여일월>, 1963, 나무에 옷칠, 나전, 63.1×287.7cm

16 김학수, <능행도>, 1977, 종이에 수묵담채, 150×304.8cm

17 서세옥, <백두산 천지도>, 1990, 종이에 수묵담채, 119.8×159.2cm

18 박대성, <일출봉>, 1990, 광목에 수묵담채, 97.5×60.9cm

19 나정태, <십장생문양도>, 1991, 종이에 채색, 300×1000cm

20 민경갑, <장생도> 1988, 종이에 수묵채색, 101.1×184.3cm

* 작품에 따라 중간에 교체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 개방 1주년 기념 전시

본관 내부 복원 프로젝트

Cheongwadae Main Hall
Interior Restoration Project

2023. 6. 1. 목 ~ 상시

Thu. 6. 1. 2023 ~ Permanent

본관 내부 복원프로젝트

1991년 청와대 본관을 신축했을 때, 이어령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자문위원단은 청와대 본관 내부 장식의 다섯 가지 기본개념을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한국적 이미지를 최대한 강조,
둘째, 전통성과 현대성의 조화 강조,
셋째, 한국의 역사성과 문화성 강조,
넷째, 전통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 고취,
다섯째, 정중함을 표현.

이에 따라 ‘천(天)·지(地)·인(人)’의 개념을 정하고, 하늘을 상징하는 천정에는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를, 땅을 상징하는 2층의 북쪽 벽면에는 <금수강산도>를 설치하였으며, 1층은 ‘사람’의 공간으로 설정하고 지금은 사라진 <행렬도>와 <수렵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각 공간별로 적절한 가구와 샹들리에와 벽등, 카펫을 디자인하고 제작해 배치하였습니다.

이후 30여 년이 지나고, 청와대도 대통령의 공간에서 국민의 공간으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섯 개의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와대 본관의 내부장식을 대통령의 공간이었던 시기에 준하여 복원하고자 합니다.

본관의 붉은 카펫과 커다란 한반도 지도는 여전히 국빈을 맞이하듯 국민을 맞이할 것이고, 국무회의 장소였던 세종실은 그 엄중함을 상징하듯 12명의 대통령의 초상화와 문무당상관의 상징인 홍배와 <일월도>와 <훈민정음> 벽화가 멋진 샹들리에와 함께 펼쳐질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행사장으로 사용되었던 충무실, 대통령의 집무실과 접견실, 로비 등 여러 공간이 순차적으로 본래의 모습으로 복원될 것입니다. 낡고 훼손된 부분들은 정비하여 새로워질 것이며, 청와대의 역사를 담은 전시공간 등 다양한 모습으로 국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국민의 공간이 된 청와대가 여전히 존엄한 모습으로 문화매력국가 대한민국의 상징임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Main Hall Interior Restoration Project

In building the Cheongwadae main hall in 1991, the advisory panel with Minister LEE O-YOUNG as chairman, has set the five basic concepts of internal decorations of Cheongwadae's main hall.

First, emphasizing the Korean image as much as possible,
Second, emphasizing the harmony between traditionality and modernity,
Third, emphasizing Korea's historicalness and cultural characters,
Fourth, inspiring interest in traditional culture arts,
Fifth, expressing politeness.

In accordance with such, the concepts of ‘Cheon (天 - Sky) · Ji (地 - Land) · In (人 - Human)’ was established. In the ceiling which represents the sky, the <Cheon-sangyeolchabunyajido (Chart of the constellations and the regions they govern)> was installed, in the Northern wall on the second floor representing land, the <Geum-sugangsando (Beautiful Land of Korea)> was installed and the first floor was set to be the realm of ‘human’ and <Haengryeoldo (Drawing of a king's excursion)> and <Suryeobdo (Painting of horseback hunting)>, which are now gone, have been install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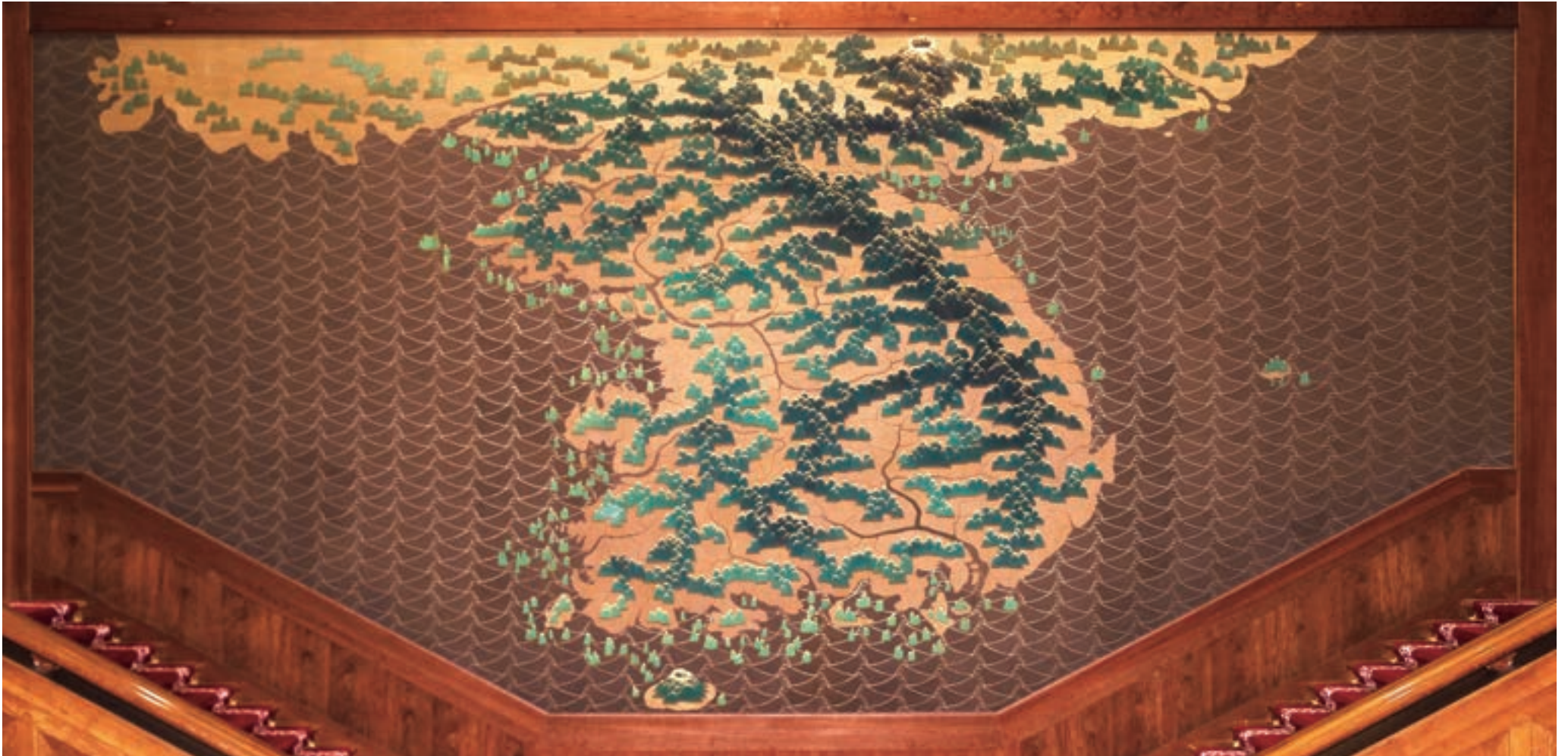
Moreover, furniture, chandelier, wall lamps, carpets, etc. appropriate to each space was designed, manufactured and furnished.

30 years have passed since, and a lot has changed as Cheongwadae has transitioned from a presidential space to the space of the people. However, the five concepts are still valid. For this,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tends to restore the internal decorations of the Cheongwadae main hall back to the times when it was a presidential space.

As the red carpet and the large map of the Korean peninsula continue to greet national guests, they will greet the citizens and as how Sejongsil, the place of the cabinet meetings symbolizes the stringency the portraits of 12 presidents, along with Hyoongbae of civil and military officials, murals of <Ilwoldo (Sun, Moon, and Five Peaks)> and <Hunminjeongeum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will be laid out with a beautiful chandelier.

Other than such, Choongmusil - which was used for various events, The Presidential Office and Reception room, Lobby, etc. will be restored to its former form in order. Old and damaged parts will be made anew with service, and will greet the citizens as various spaces such as exhibition areas, etc. with the history of Cheongwadae.

We hope that Cheongwadae, now a people's space, can become a space where visitors can feel that it is the symbol of a culturally attractive country, Republic of Korea.



김식 <금수강산도> | 1991 | 종이에 채색, 533×1146cm

김식(金植, 1952~)은 홍익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술대학 보존수리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약 4개월간 옛 진명여고 강당에서 이 작품을 제작하였다. 본관 중앙 계단의 북쪽 벽면에 설치된 <금수강산도>는 조선 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1816년에 제작한 '대동여지도'를 기본으로 하여 옛 지도들을 참고하여 제작한 벽화다. 삼면을 에워싸고 있는 출렁이는 금빛 물결과 함께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하여 한라산의 백록담으로 이어지는 백두대간과 강의 흐름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처음에 은을 혼합하여 채색한 금색 부분이 30여 년의 세월 동안 산화되면서 검게 변하였는데, 2023년 원 작가인 김식 작가의 복원을 통해 다시 금색으로 빛나게 되었다.

KIM SHIK <Geumsugangsando (Beautiful Land of Korea)> | 1991 | Ink and color on paper, 533x1146cm

KIM SHIK (1952~) ~~has~~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and ~~has graduated~~ from Preservation Repair Department, Tokyo University of Arts. He ~~has~~ produced this artwork in the old Jinmyeong Girl's Highschool assembly hall for about 4 months. The <Geumsugangsando> installed on the Northern wall of the central stairs is a mural produced in reference with old maps, based on the 'Daedongyeojido (The Great Map of the East Land)' produced by the late Joseon era geographer, KIM JEONG-HO in 1816. It expresses well the rolling golden waves surrounding three sides, the Baekdudaegan (Baekdu mountain-range) from, Cheonji, Mt. Baekdu to Baengdokdam, Mt. Halla, and the flow of rivers.



이영찬 <풍악> | 1973 | 종이에 수묵담채, 162.8×132cm

《제22회 대한민국미술대전 대통령상 수상작》

LEE YOUNG CHAN <Poongak (Wind and Mountain Peaks) (風岳)> | 1973 | Ink and color on paper | 162.8x132cm <<The 22nd Korea Art Exhibit Presidential Award Winner>>

지목(志木) 이영찬(李永燦, 1935~)은 서울에서 태어났다. 노수현(盧壽鉉, 1899~1978)을 사사했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그는 전통적인 산수화의 필법으로 실제 풍경을 밀도 있게 묘사하여 우리나라 산들의 웅장한 기세를 화면에 담아내었다. <풍악(風岳)>은 설악산의 가을을 그린 작품이며, 《제22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의 대통령상 수상작이다. 작가는 설악산에서 경험했던 설악산 특유의 험준하고 장엄한 분위기를 화폭에 옮겨 놓았다. 또 화면 전체를 풍경으로 가득 채우고, 바위와 나무 등을 세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마치 관객이 산속에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자아내도록 하였다.

LEE YOUNG CHAN (Nom de plume: Jimok, 1935~) was born in Seoul. He has studied under ROH SOO HYEON (1899~1978) and has graduated from Arts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rough his stroke of traditional landscapes, he describes real sceneries in density and expresses the grandeur of Korea's mountains on screen. <Poongak> is an artwork depicting the autumn of Mt. Seollak, and is the winner of the presidential award at <<The 22nd Korea Art Exhibition>>. The artist has recreated on screen the rugged and grandeur atmosphere of Mt. Seollak which he has experienced in Mt. Seollak. Moreover, by filling the entire screen with the scenery and describing rocks and trees, etc. in details, the artist has the viewers feeling as if they are in the mountains themselv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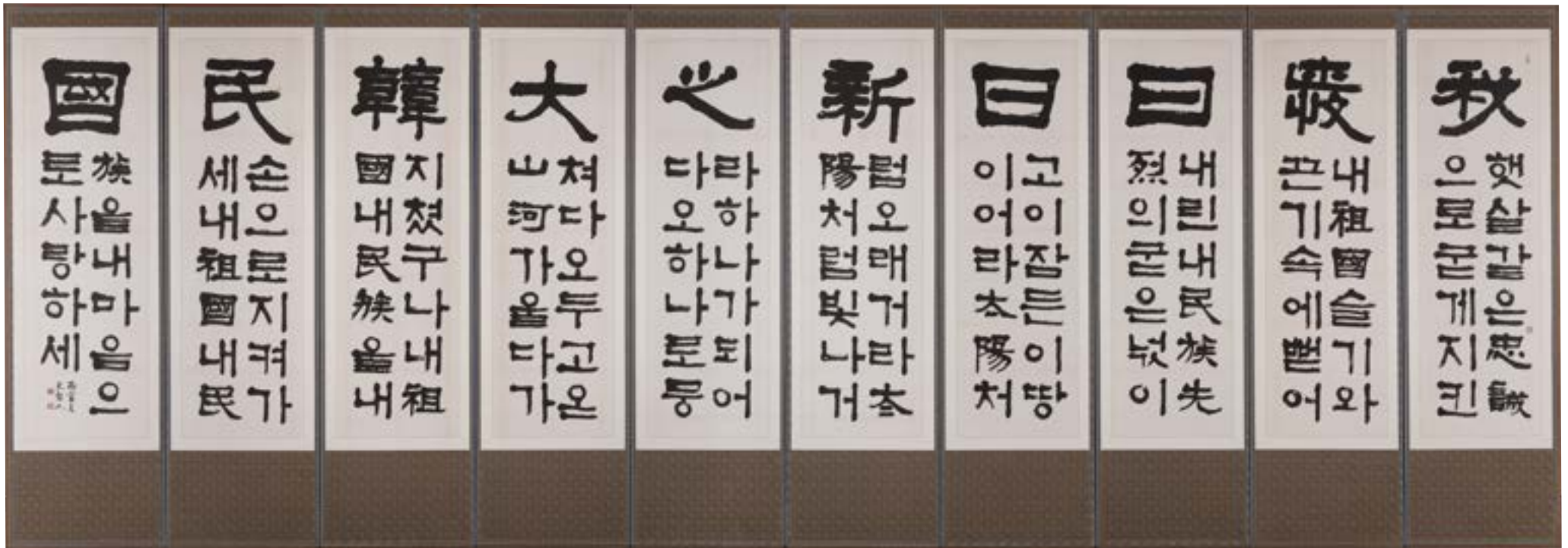


하태진 <산수> | 1983 | 종이에 수묵담채, 164.9×161cm

HA TAE JIN <Sansu(Landscape)> | 1983 | Ink and color on paper, 164.9x161cm

석운(石暈) 하태진(河泰璿, 1938~)은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으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초기에는 실험적인 수묵추상의 작업을 하였으나 1980년대에는 우리 자연의 실경을 세부적인 묘사와 함께 전통적인 산과 바위를 수묵의 과감한 번짐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기법으로 표현하였다. 1990년대 이후 호방한 필치를 구사하여 자유로운 수묵산수의 세계를 개척하였다. <산수>는 실제 경치를 자신의 독특한 묘사법으로 재해석하여 표현한 작품이다. 근경에서 보이는 먹의 강한 농담(濃淡) 대비와 중경 이후 부드럽게 표현된 안개 싸인 풍경이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HA TAE JIN (Nom de plume: Seokun, 1938~) was born in Geumsan, Chungcheongnam-do, and has graduated from Arts College, Hongik University. Initially, he worked on experimental Korean ink abstract paintings, but in the 1980's he has expressed Korea's natural scenery with detailed descriptions, through various methods such as using bold smearing of Korean ink to express traditional mountains and rocks, etc. Following 1990's, he has used his Bohemian strokes to explore the free world of Korean ink landscapes. <Sansu> is an artwork expressing the actual landscape through reinterpretation with his unique profile methods. The contrast of ink's strong concentration found in the near scenery, and the fog-covered scenery softly expressed beyond the mid-range scenery rest in harmony in this artwork.



이수덕

〈아애일일신지대한민국 (我愛日日新之大韓民國)〉

10폭 병풍 | 1986 | 종이에 먹, 194.4×56.7cm×(10)

LEE SOO-DUK <A-ae-il-il-sin-ji-daehanmingook(I love Korea, which is getting better everyday)> 10-fold folding screen | 1986 | Ink on paper, 194.4x56.7cmx(10)

“나는 나날이 새로워지는 대한민국을 사랑한다.”라는 제목의 이 거대한 서예병풍은 이수덕 서예가(小堂 李壽德, 1926~2020)가 북에 두고 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기원하는 마음과 애국심을 담고 있다. 이수덕은 황해도 연백이 고향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 여군으로 군에 입대해 칼빈 소총 1등 사수로 나라를 위해 싸우고 1956년 대위로 전역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라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고, 이는 우리 것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우리 글씨를 후손에게 남겨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발전하여 우리글씨체본을 남기는 일로 이어졌다. 우리에게 익숙한 ‘양화대교’, ‘한남대교’ 등의 명판이 이수덕의 글씨다. 정의여중교 교사와 국전 심사위원, 예술원회원을 역임하였다. 힘차게 놀려 쓴 예서체의 거대한 글씨들은 이러한 그의 삶과 일치되어 더욱 큰 울림을 갖는다.

This enormous calligraphy folding screen with the title of “I love the ever-renewing Republic of Korea” portrays the longing for home the calligraphy artist LEE SOO-DUK (1926~2020) has left behind in the North, the wishful thinking of reunification of the homeland and patriotism. LEE SOO-DUK is from Yeonbaek, Hwanghae-do. She joined the armed forces as a female soldier in 1950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fought for her country as best marksmen of carbine rifles and was discharged honorably at the rank of captain in 1956. Through such experience, she has dearly learned the importance of a country. This has developed into a sense of duty to leave behind the thoughts of protecting what is ours and our writings to our descendants, and led to the creation of Woorigeulssichebon. The nameplates of ‘Yanghwa Bridge’, ‘Hannam Bridge’, etc. well-known to us are the writings of LEE SOO-DUK. She has served in the roles of teacher at Jeongui Girls’ Middle/High School, judge for national art exhibitions, and art academy member. The enormous letters of Yeaseo typeface forcefully written down match such life of hers, having an even bigger impact to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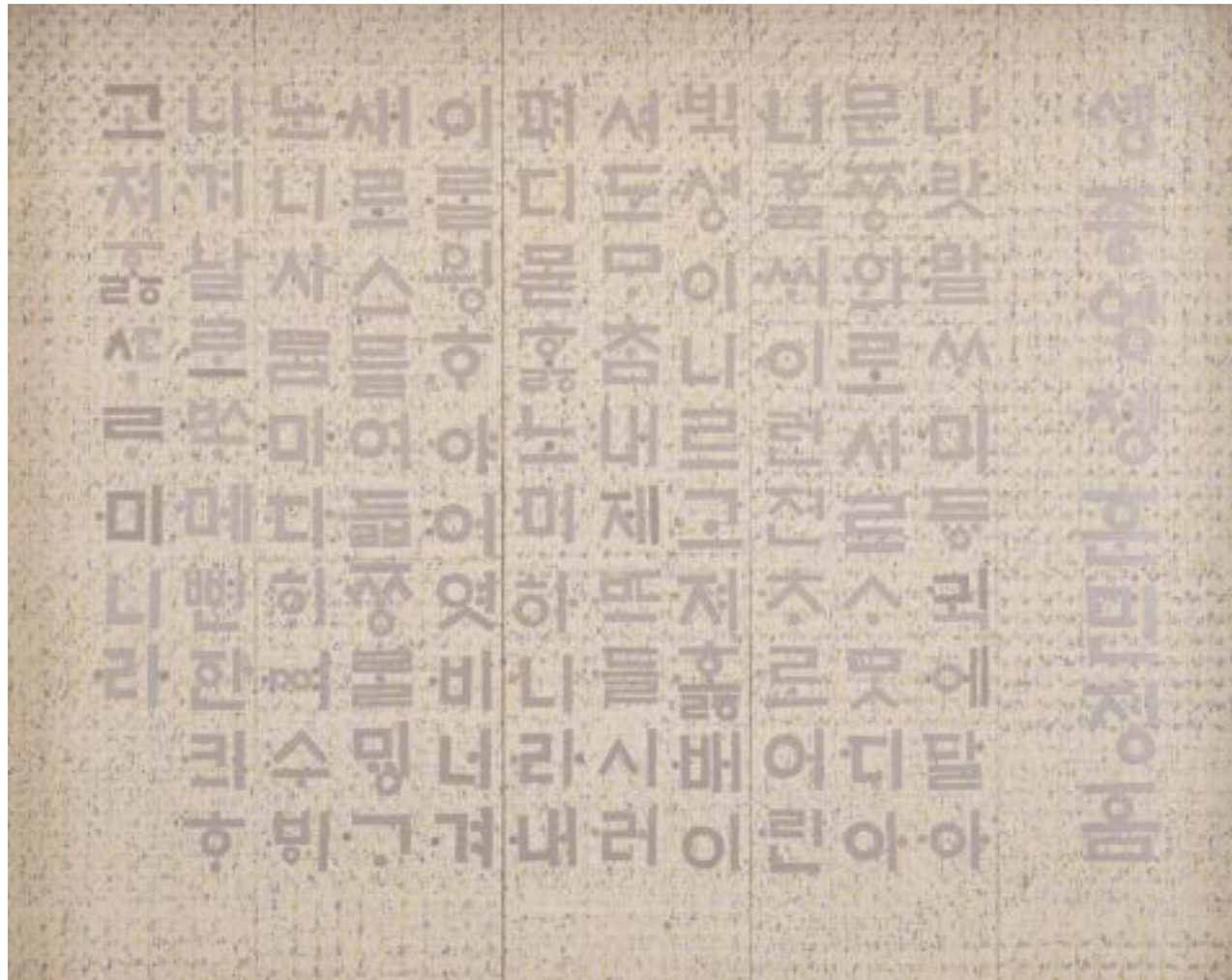


송규태 <일월도> | 1991 | 종이에 채색, 368×465cm

파인(芭人) 송규태(宋圭台, 1934~)는 평가절하되었던 속화와 궁중회화를 복원하고 계승하여 '민화' 화단의 기틀을 만든 한국 민화계의 거장이다. '일월도'는 조선시대 해와 달, 다섯 개의 산봉우리, 소나무와 물로 구성된 작품으로 어좌 뒤편에 배치하여 왕과 왕의 권위를 상징하였던 그림이다. 송규태의 <일월도>는 세종실에서 대통령 좌석이 배치되었던 북쪽 벽면에 설치되었다. 원래의 일월도는 보통 강한 원색으로 채색이 되는데, 세종실에 설치된 벽화는 색이 옅고 부드러워 앞에 앉은 사람보다 강하게 두드러지지 않도록 한 것을 알 수 있다.

SONG KYU-TAE <Ilwoldo (Sun, Moon, and Five Peaks)> | 1991 | Ink and color on paper, 368x465cm

SONG KYU-TAE (Nom de plume: Pa-in, 1934~) is a maestro in Korean folk painting, forming the 'folk painting' school of art by restoring and succeeding the commonplace paintings and court paintings that have been depreciated. 'Ilwoldo' is an artwork composed of the Sun and the Moon, five mountain peaks, pine trees and water in the Joseon era, situated behind the throne, representing the king and the king's authority. SONG KYU-TAE's <Ilwoldo> has been installed on the Northern wall in the Sejongsil, where the president's seat was located. It can be noticed that the mural installed in Sejongsil was thin in colors, not overwhelming the person sitting in front of it whereas the original Ilwoldo is painted with strong colors.



백금남 <훈민정음> | 1991 | 종이에 실크스크린, 368×465cm

성균관 대학교 명예교수인 백금남(白金男, 1948~)은 홍익대학교 도안과를 졸업하고 판화가와 디자이너로 활동하였다. 세종실은 청와대 본관의 서쪽에 위치한 별채로 국무회의장으로 사용되던 곳이다. 세종실의 남쪽 벽면에 설치된 <훈민정음>은 대형 실크스크린 패널 5개를 연결하여 제작된 대형 벽화다. 이 벽화는 무수한 중국의 한자가 겹쳐져서 만들어진 바탕 위에 은색의 월인천강지곡 (月印千江之曲)체의 한글이 얹혀서 드러나게 제작되어 있다. 이는 우리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없었던 백성을 위해 만들었다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을 설명한 서문의 내용을 시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BAIK KUM-NAM <Hunminjeongeum (The proper sounds for the instruction of the people)> | 1991 | Silk screen on paper, 368x465cm

BAIK KUM-NAM (1948~), honorary professor at Sungkyunkwan University has graduated from Design department, Hongik University and had worked as a print artist and as a designer. Sejongsil is an annex located West of the Cheongwadae main hall, which was used as the location of cabinet meetings. <Hunminjeongeum> installed on the Southern wall of Sejongsil is a large-scale mural produced by connecting 5 large silk screen panels. This mural is made so that Hangeul in silver Wolincheongangjigok typeface is shown on top of the background where countless Chinese characters are overlapping.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visualization of the details of the introduction explaining the backgrounds of the creation of Hangeul by King Sejong the Great, who made the Hangeul for his people who could not speak as our language differed from that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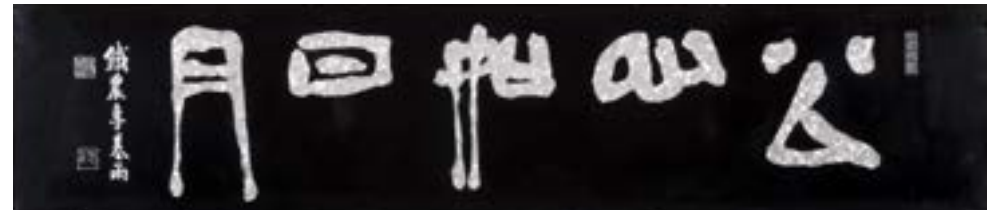


김희진 <청홍류소한쌍> | 1991 | 매듭, 220×110cm×(2)

KIM HEE JIN <A Pair of Ornament in Blue and Red> | 1991 | Knot, 220x110cmx(2)

김희진(金喜鎭, 1934~2022)은 국가무형문화재 매듭장 명예보유자이다. 유소는 매듭, 술, 다회(多繪: 실을 합사하여 두 세 가닥 이상으로 짜서 만든 끈)로 구성되어 깃발이나 악기, 가마, 영정, 상여 등에 길게 늘어뜨려 장엄하게 장식하는 역할을 한다. 이 유소의 바탕은 운문단으로 짜여져 있고, 그 위에 11줄의 가늘게 짠 동다회(단면이 둥글게 짜여진 끈)를 늘어뜨려 전통 한옥의 창문과 같은 형태를 만들었다. 그 위에 굵은 동다회로 만든 유소를 드리워 2중 구성을 하고 있다. 이 대형 유소는 청와대 본관 건립 시에 충무실 입구 좌우 벽면에 설치되어 충무실의 입장객을 맞이하는 역할을 하였다.

KIM HEE JIN (1934~2022) is the honorary holder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asset knot maestro. Yuso, a motive ornament, consists of a knot, a string, and a braid (a yarn created by braiding threads together into two or three strings) and is attached to an object such as a flag, an instrument, a carriage, a portrait, a funeral bier, etc. to make it look sublime. The surface of this ornament has a cloud pattern above which a rounded dahoe (rounded cord) with eleven thin braided strings is suspended to make it look like a window of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Hanok. The other Yuso, made of a thick round dahoe is placed above, making it double-layered. The pair of Yuso were hung on the left and the right walls of the Chungmusil Office when the main building was built, greeting the visitors to the Chungmusil Off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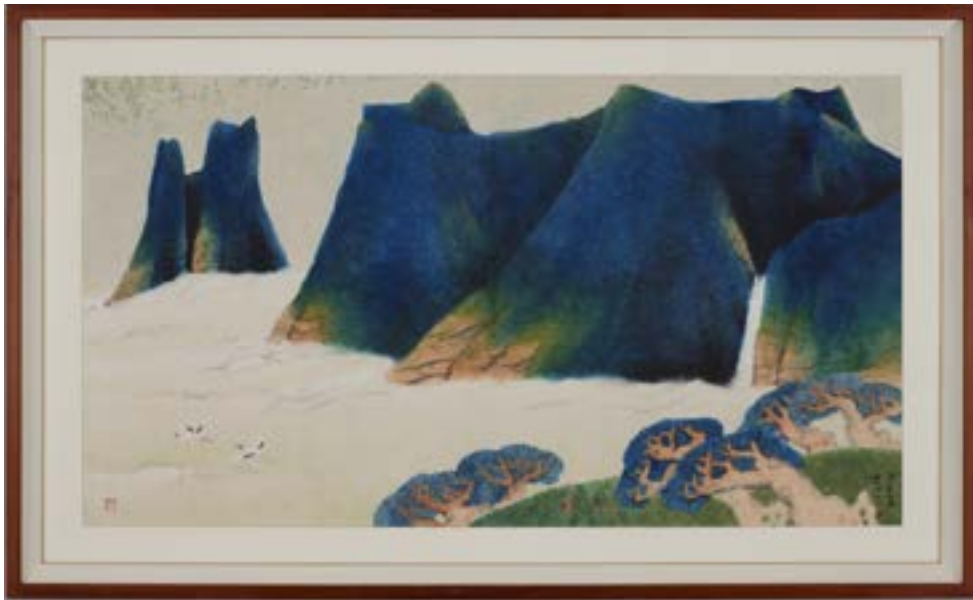
이기우 <공심여일월(公心如日月)>

| 1963 | 나무에 옷칠, 나전, 63.1×287.7cm

LEE KI-WOO <Gongsimyeoilwol (Fair-mindedness is like the Sun and the Moon that shine on everyone) (公心如日月)> | 1963 | lacquer on wood, Nacre, 63.1x287.7cm

서울에서 태어난 이기우(鐵農 李基雨, 1921~1993)는 위창 오세창(葦滄 吳世昌, 1864~1953)과 무호 이한복(無號 李漢福, 1897~1940), 그리고 전각가 이이다 슈쇼(飯田秀處, 1892~1950)에게 사사한 서예가자 전각가다. 그는 전각을 독자적인 하나의 전시 분야로 개척하고 고전미와 현대적 추상미를 접목시킨 작가로 평가되고 있다. 이 작품의 원본은 1959년 개인전에 출품되었던 서예작품이다. 옷칠한 큰 나무판에 자개로 한 획 한 획을 표현한 이 작품은 “공평한 마음은 해와 달과 같다.”라는 뜻으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공정하고 평등한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EE KI-WOO born in Seoul (1921~1993) is a calligrapher and a seal engraver having studied under OH SE CHANG (Nom de plume: Wichang, 1864~1953), LEE HAN BOK (Nom de plume: Muho, 1897~1940), and seal engraver lida Shusho(1892~1950). He has pioneered seal engraving as a separate exhibition field, and is assessed to be the artist grafting traditional beauty with the modern abstract beauty. The original of this artwork is the calligraphy piece submitted to personal exhibition in 1959. This artwork, expressing each stroke with nacre on a large lacquered wooden board means "Impartiality shall be fair as the Sun and the Moon are", encompassing the meaning of wishing for a fair and equal state administration benefiting all citizens.



민경갑 <장생도(長生圖)> | 1988 |

종이에 수묵담채, 101.1 × 184.5cm

MIN KYOUNG-KAP <Jangsaengdo(長生圖) (Painting of the symbols of longevity)> | 1988 | Ink and color on paper, 101.1x184.5cm

유산(酉山) 민경갑(閔庚甲, 1933~2018)은 충청남도 논산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을 졸업했다. <대한민국미술전람회>에서 수차례 입상하고, 1960년에는 묵림회(墨林會)에 참가하여 한국화의 현대화를 모색했다. 영남대학교 및 원광대학교 교수, 한민국예술원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은관문화훈장(2002)을 받았다. <장생도>는 장수와 영생이 주제이다. 화면에는 커다란 산이 우뚝 솟아 있고, 산골짜기에서는 물이 흘러내리며, 구름이 산을 감싸고 있다. 또 화면 아래에는 두루미와 사슴이 노닐고 있으며, 소나무가 여러 그루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산, 물, 구름, 두루미, 사슴은 모두 십장생에 포함되는 것으로 장수를 의미한다.

MIN KYOUNG-KAP (Nom de plume: Yusan, 1933~2018) was born in Nonsan, Chungcheongnam-do, and has graduated from Arts College, Seoul National University. He has won multiple awards at the «Korea Art Exhibition», and in 1960 he has joined the Mukrimhoe and sought for the modernization of Korean paintings. He has served the roles of professor in Yeungnam University and Wonkwang University, Chairman of Korea Art Academy, and was awarded the Silver Crown Order of Cultural Merit (2002). Longevity and eternal life are the themes of <Jangsaengdo (Painting of the symbols of longevity)>. In the screen stands tall an enormous mountain, water flowing down from the valley and clouds shrouding the mountain. Moreover, at the bottom of the screen plays the cranes and deer, with multiple pine trees depicted. The mountain, water, cloud, crane, deer depicted in this work all are elements of sipjangaeng (Ten symbols of longevity), representing longevity.



박대성 <일출봉> | 1990 | 광목에 수묵담채, 97.5 × 60.9cm

PARK DAE-SUNG <Ilchulbong (Sunrise Peak)> | 1990 | Ink and color on cotton, 97.5x60.9cm

소산(小山) 박대성(朴大成, 1945~)은 경상북도 청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제2회 중앙미술대전> (1979)에서 대상을 받았고 2020년 옥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이후 대만과 뉴욕에서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경험했다. 귀국 후 경주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정선(鄭敼, 1676~1759)으로부터 이어지는 진경산수의 기상과 서구의 모더니즘 기법을 접목한 독자적인 화풍을 창출하였다. 박대성은 1980년대 중반부터 제주도에 머물면서 제주도의 풍광을 많이 그렸다. 가로로 펼쳐진 해안선 같은 대작이 이때 주로 제작되었는데, 이후로도 그는 일출봉을 비롯한 제주도 풍경을 다수 그렸다. <일출봉>은 제주도의 성산 일출봉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박대성 특유의 과감한 구도와 간결한 수묵담채가 돋보이는 그림이다. 작가는 근경에는 푸른 초목, 중경에는 바다에 비친 일출봉의 모습, 원경에는 청록의 일출봉을 세로로 배치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PARK DAE-SUNG (Nom de plume: Sosan, 1945~) was born in Cheongdo, Gyeongsangbuk-do. He won the grand prize at the «2nd JoongAng Fine Arts Prize» (1979) and was awarded the Jade Crown Order of Cultural Merit in 2020. Afterwards, he has experienced the flow of art in the same age in Taiwan and in New York. After returning to Korea, he worked while being based in Gyeongju, and has created his unique style, grafting the vigor of the beautiful nature continued down from JEONG SEON (1676~1759) and the modernism methods of the West. Since the 1980's, PARK DAE-SUNG has resided in Jeju Island, often drawing the scenery of Jeju Island. Masterpieces such as the coastline spread out horizontally have usually been produced during this period. He continued to paint sceneries of Jeju Island such as the Ilchulbong, afterwards. <Ilchulbong> is an artwork with the Seongsan Ilchulbong of Jeju Island as its subject, painting in which the bold composition of PARK DAE-SUNG and the concise Korean ink painting are emphasized. The artist has composed the screen by placing the green vegetation in the close-range view, the view of Ilchulbong reflected on the sea in the mid-range view, and the green Ilchulbong vertically in the far-range view.

© 이 글의 저작권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해당 저작권자에 있습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복제, 변형, 송신을 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글에 저작권자를 올바르게 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표시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깊이 사과드립니다.

© The copyrights of this article lie with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nd the relevant author. Unauthorized reproduction, copy, modification, transmission of this article is prohibited as it is a work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s Act.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put its best efforts into correctly marking the copyright holder of this article. However, most sincere apologies are provided in cases inappropriate markings or omissions have been made.

관람 시간 Operating hours

기간 Period	시간 Operating hours	입장마감 시간 Final admission
3월 ~ 11월 March ~ November	9:00 ~ 18:00	17:30
12월 ~ 2월 December ~ February	9:00 ~ 17:30	17:00

※ 화요일에는 개방하지 않습니다.(다만, 화요일이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화요일은 정상 개방되며, 그 다음날이 휴관일이 됩니다.)

※ Closed on Tuesdays.(However, when a public holiday or a substitute holiday falls on a Tuesday, we will be open on Tuesday and closed the following day.

관람 방법 Admission

- ◆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외국인인 현장 입장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정문 종합 안내소에서 하루에 두 번(오전 9시, 오후 1시 30분, 회당 1,000명)접수합니다.
- ◆ 정문과 춘추문으로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신분증과 예약할 때 받은 입장용 바코드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 ◆ Seniors age 65 years old and above, persons with disability, patriots, veterans, and foreigners can make an admiss.
- ◆ Visitors can enter either via the main gate or the Chunchumun gate. Please show your ID and a barcorde for entry you received after making a reservation.

알림 Notices

- ◆ 청와대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마십시오.
-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는 생수, 양산 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합니다.
- ◆ 시설 개보수 또는 행사가 있거나 눈·비 등으로 건물 내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태풍 등 자연재해로 관람객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에도 청와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의 관람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 ◆ 청와대를 관람하실 때에는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코로나 19확산 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쓰시길 권합니다.

- ◆ Smoking is prohibited throughout the Cheong Wa Dae premises, buildings, and grounds.
- ◆ Visitors are recommended to bring bottled water and an umbrella.
- ◆ In the case of rain, internal viewing of major buildings such as the Main Building and Yeongbingwan may be restricted in order to prevent damage. In addition, if there are concerns over visitor safety due to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visits to all or part of the Cheong Wa Dae precincts may be temporarily suspended.
- ◆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wearing a face covering is recommended at the precincts.

청와대 정규 해설 운영 안내 ※ 기상 상황 악화 시 해설 운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회차	시작 시간	해설코스	시작하는 곳
1회차	10: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구본관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2회차	11:00	수목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백악교-관저-구본관터-본관-소정원-영빈관	상춘재
3회차	14: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구본관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4회차	15:00	역사문화공간 프로그램 녹지원 - 상춘재 - 구본관터 - 본관 - 영빈관	녹지원
5회차	16:00	수목탐방 프로그램 '대통령의 나무들' 상춘재-백악교-관저-구본관터-본관-소정원-영빈관	상춘재

Guided tour ※ Commentary program may be canceled if weather conditions worsen.

Turn	Start time	Tour course	Start
1th	10:00	Historical & Cultural Space Program Nokjiwon - Sangchunjae - Farmer Main Office Building Site - Main Office Building - Yeongbingwan	Nokjiwon
2nd	11:00	President's Trees Program Sangchunjae - Beakak bridge - Official Residence - Farmer Main Office Building Site - Main Office Building - Small Garden - Yeongbingwan	Sangchunjae
3rd	14:00	Historical & Cultural Space Program Nokjiwon - Sangchunjae - Farmer Main Office Building Site - Main Office Building - Yeongbingwan	Nokjiwon
4th	15:00	Historical & Cultural Space Program Nokjiwon - Sangchunjae - Farmer Main Office Building Site - Main Office Building - Yeongbingwan	Nokjiwon
5th	16:00	President's Trees Program Sangchunjae - Beakak bridge - Official Residence - Farmer Main Office Building Site - Main Office Building - Small Garden - Yeongbingwan	Sangchunjae